

〈옥에 갇힌 남편을 살려 주면 몸을 허락하겠다는 열녀〉형 說話에 나타난 諸問題

李仁卿*

1. 머리말

우리 고전 문학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대개 孝女, 賢母良妻, 슬픈 사랑을 한 美女이거나 또는 惡한 繼母 아니면 烈女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처럼 전통사회에서 여인의 존재는 남성 또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권장되던 최대 가치가 賢母良妻였다고 할 때, 불행히도 상황이 여인으로 하여금 현모양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次善으로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烈女가 되는 것이었다. 기록문학과 구비문학을 불문하고 烈女는 빈번히 사람들의 관심 속에 머무는 소재였다. 현모양처의 이야기가 비교적 현실성 있게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되는 반면, 烈女譚은 곧잘 아름다운 감동의 차원을 벗어나서 비장함을 넘어 잔인한 이야기로 변질되거나, 이야기가 종결된 이후에도 人道的 측면에서 뒷맛이 개운치 않은 문제를 남기곤 한다. 그리고 때로는 현실감을 상실한 이념적인 내용에 그치는 탓에 이야기가 흥미롭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특히 기록문학에 등장하는 烈女들의 이야기가 그러한데 이 열녀들은 주로 경직된 이념의 化身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 서울대 강사

한편 口碑說話 자료에는 특이한 열녀 이야기가 있어 흥미를 끄는데 바로 '改嫁烈女談' 또는 '남편을 살려주면 몸을 허락하겠다는 열녀' 유형 설화가 그것이다.¹⁾ '남편을 살려주면 몸을 허락하겠다는 열녀' 설화 유형은 烈女가 되려면 貞節을 굳게 지켜야 (남편에게만 性을 독점적으로 허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몸을 허락함으로써 오히려 남편을 구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여인의 갈등과 문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이다. 이 유형의 명칭은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설화 유형 분류에서 사용된 것으로 이 유형 안에는 여러 하위 유형이 들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검토하지 않았던 '옥에 갇힌 남편을 살려주면 몸을 허락하겠다는 열녀' 유형을 검토하기로 한다.²⁾ 이 이야기 유형에 대한 선해연구는 찾기 어려운데,³⁾ 구비 열녀 설화

- 1) 졸고, <'改嫁烈女談'에 나타난 烈과 貞節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6집, 한국구비문학회, 1998에서 이 설화 유형을 다른 바 있는데, 이 설화 유형에서 나타나는 烈, 貞節, 失節의 개념을 재정의하여 사용한 바 있다. 잠시 소개해 둔다. '남편을 살려주면 몸을 허락하겠다는 열녀'라는 설화의命名에서부터 알 수 있듯 이 설화 유형에서는 남편이 아닌 남성에게 性을 허락함으로써 貞節을 輢순하는 것 즉 失節이라는 개념과 烈女라는 두 개념이 충돌하면서 우리에게 혼란을 준다. 이는 설화 전승자들이 지닌 烈과 貞節에 대한 인식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임을 보여 준다. 그런 까닭에 본고에서 사용되는 烈이란 용어는 자못 복합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므로 논의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 이 설화 유형에서 전승자들이 보여주는 烈관념은 조선조의 규범적인 烈관념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정절을 지키는 것만이 아닌 아내가 남편의 有益을 위하여 행하는 모종의 가치로운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 貞節의 辭典的 定義는 '여성의 곧은 절개' 또는 '정절을 굳게 세우고 굽하지 아니함' 그리고 烈女는 '고난이나 죽음을 무릅쓰고 절개를 지키어 남의 모범이 될만한 여자'라고 되어 있다.(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2). 이런 사전적 정의는 결국 정절에 대한 同語反覆에 그치는 결과가 되므로, 일단 貞節이란 한 여성의 한 남성에게만 性을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리해 둔다. 따라서 최초의 한 남성(첫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性을 허용하는 것은 貞節을 잃는 것, 즉 失節(훼절)이라고 본다. 그러나 失節이 곧 不烈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이 설화 전승자들의 인식이다. 따라서 貞節은 여인이 행하는 烈의 한 방식이며 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2) 졸고, 앞의 글에서 다른 하위 유형들을 검토한 바 있다. '옥에 갇힌 남편을 살려주면 몸을 허락하겠다는 열녀'라는 명칭은 필자가 설정한 것이다. '남편을 살려주면 몸을 허락하겠다는 열녀' 유형에 속하는 자료로서 필자가 아직 다루지 않은 것은 '하룻밤을 지내도 만리장성을 쟁는다는 유래' 유형이 있다. 다른 지면에서 논할 예정이다.
- 3) 필자가 寂聞한 탓일지 모르나 찾지 못하였다. 이후에 발간한다면 후속연구에서 밝히기로 한다. 사실 구비 열녀 설화에 대한 논의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연구로 민찬, <烈不烈설화의 이념적 지향과 삶의 문제>, 《한국문화》 9집,

전체를 조망한 바 있는 김대숙 역시 ‘남편을 살려주면 몸을 허락하겠다는 열녀’ 유형을 논할 때 이 하위 유형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하는 각편의 수가 워낙 적은 까닭에 연구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편을 살려주면 몸을 허락하겠다는 열녀’ 유형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문제는 남편의 생존을 위해 여인의 정절이 회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한편 ‘옥에 갇힌 남편을 살려주면 몸을 허락하겠다는 열녀’ 유형이 특별히 다른 하위 유형과 구별되는 것은 여인의 韋절이 改嫁의 형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충계급의 남자에게 상납되는 一回的 뇌물의 성격으로서 강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위 유형에서는 여인이 나병을 앓고 있는 남편과 遊離乞食을 하다가 남편의 병 수발을 위해 부자인 後夫에게 改嫁하는데, 이 때 여인의 개가는 경제적인 동기로 인해 비교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옥에 갇힌 남편을 살려주면 몸을 허락하겠다는 열녀’ 유형에서는 남편의 生死를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御使가 남편의 生命과 여인의 貞節을 맞바꾸는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烈이념을 고양하여야 하는 御使가 오히려 韋절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복잡해지는 것이다.

이 설화 유형에 담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양상을 검토하는 것이 본고의 의도인데, 각편마다 구체적인 상황 설정이 달라서 그 의미지향이 다르므로 각 편에 나타난 전승자의 다양한 의식을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해 해당 자료 모두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2. 각편의 변이양상과 의미

이 유형에 해당하는 각편으로는 《韓國口碑文學大系》에서 네 편을 찾았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7, 황인덕, <‘烈女試驗’형 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烈인식의 의미>, 《조종업 박사 학갑기념논총》, 1990, 김대숙, <구비열녀설화의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9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4, 그리고 출고, 앞의 글 등을 들 수 있으며, 자료 소개에 중심을 둔 연구 성과들이 있다.

는데,⁴⁾ 다음과 같다.

- (8-7) [어사 박문수와 열녀] 김수운, 남. 61.
- (7-9) [어사와 열녀] 이윤덕, 남. 72.
- (8-10) [그림의 열녀] 김채란, 여. 63.
- (5-3) [초계 열녀 이야기] 임영환, 남. 84.

2.1. [어사 박문수와 열녀] 김수운, 남.

박문수가 서당에 다니던 시절, 賤人인 서당지기의 딸이 美人이었다. 박문수가 틈을 타서 처녀를 유혹하니 승낙하고 기일을 달라고 하였다. 이튿날 보니 서당지기가 이사를 가고 없었다. 박문수가 御使가 된 후 우연히 그 여인과 재회하게 되었다. 여인의 남편이 억울하게 살인죄를 쓰고 갇혀 있음을 안 박문수가, 수청을 들면 남편을 살려주겠다고 하자 여인이 남편과 만나 의논하겠다고 하였다. 돌아온 여인은 남편이 승인하였다고 하고, 등에 업힌 어린애에게 젖을 물리며 “젖 빨리 무우라. 젖도 올 저녁이 마지막 젖이고만.”이라고 하였다. 여인이 죽음을 각오한 것을 알게 된 박문수는 만정이 떨어져서 단념하고는, 남편을 살려주고 여인에게 열녀비를 내렸다. “열녀 아이가, 자기 남자 한테는?”이라고 화자는 말한다.

총각인 박문수가 처음에 서당지기의 딸을 유혹한 것은 그가 양반의 신분이고 여인이 천인이라는 점에서 신분적 우위에 서있기 때문이다. 여인을 첨으로 삼을 생각조차도 없이 단지 박문수는 여인을 일시적 폐락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 것이었다. 이는 여인(그의 가족)으로서는 벗어나기 어려운 요구이기에 그

4) ()안은 《韓國口碑文學大系》의 권수를 보인 것이다. (5-3) [초계 열녀 이야기]와 (8-10) [그림의 열녀]의 경우 사실상 남편을 살려준다는 조건과 무관하게 권력을 편 남자가 낮은 신분의 여인에게 수청들기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변이된 것이지만 보다 심화된 논의를 위해 검토 자료에 포함하였다. 한편 이 유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각편으로 (5-5) [백어사와 열녀] 전병옥, 남. 86, 그리고 (5-6) [백어사와 열녀] 민대호, 남. 82가 있다. 이는 중세이념의 용호자이며 민중의 삶을 보살펴야 하는 어사가 여인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횡포를 가하는 것을 고발한다는 심각한 주제 의식을 담고 있어서 주목할 만한 자료이지만 열과 정절의 갈등양상이 미약하여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들이 선택한 것은 도망이었다. 사실 종의 신분으로 上典에게 忠誠을 바쳐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貞節을 위해서 도망이라는 不忠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 上典에 대한 忠이라는 價值와 여인이 지켜야 하는 貞節이라는 가치가 충돌했을 때, 여인은 忠을 버린 것이다. 사실상 忠孝烈은 모두 아랫 사람이 웃사람에게 행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인바 실제로는 그것이 요구되는 인간 관계의 양상만이 다를 뿐, 모두 忠으로 수렴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인이 지켜야 하는 貞節은 미래의 남편을 향하는 것이기에 아직 그 대상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여인은 貞節쪽을 택한 것이었다. 이는 박문수가 요구한 忠이 부당한 것이었기 때문이며, 그가 忠誠을 바칠 만한 존재로 판단되지 않은 까닭이다. 여인의 가족은 이 지배계급의 부당한 횡포에 도망이라는 방식으로 항거한 셈인데, 이는 곧 性이란 권력에 의해서 여성에게 강요될 수 없으며, 인간 상호간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자연스런 본성에 의해서만 남녀간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여기서 여인의 貞節이란 이념적 가치로 인식되기 이전에, 여인이 자신의 性的 自決權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 원치 않는 남자에게 性의인 도구로서 굴종하기를 거부하는 여인의 自意識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어사의 제의를 받자 자신의 貞節을 훼손시킴으로써 남편을 구하는 결단을 내리기 전에 여인은 남편과 의논을 거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짧게 구연되고 있어서 실제로 남편이 御使의 제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하다. 사실 이 각편만이 아니라 남성학자의 각편에서는 여인이 처한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남편의 갈등이나 의견이 서술되지 않는다. 이는 여인에게만 全的으로 이야기 전개의 초점이 맞추어진 탓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의 貞節을 팔아 목숨을 구걸하는 남편을 부각시킬 경우 烈이라는 이념적 가치를 부여하는 주체인 남성의 도덕성에 적잖은 흄집을 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꺼려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여인이 남편과 상의하였다라는 내용을 삽입한 것은 부부의 性은 부부가 공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의 性은 남편에게 종속된 것이기에 여인이 性의 自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후에 검토할 여성 화자 김재란의 각편에서는 대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자 남편이 그 보답의 뜻으로 대감에게 수청들 것을 여인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이는 윤리적 책임

이 全的으로 남편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서 다른 각편들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등에 업힌 어린 자식에게 젖을 먹이며 죽음을 준비하는 여인의 결단이 담담하게 서술되고 있는데, 失節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젖먹이 아이를 두고 죽음을 택한다는 것은 이념이 얼마나 강하게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가를 보여 준다. 남편을 살린 후 여인이 반드시 죽음을 택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정절을 훼손하여 남편을 살렸더라도 훼손된 정절이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사회적 통념을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여인이 失節하고도 자결하지 않을 경우, 외간 남자와 동침한 것이 남편의 목숨을 명분 삼아 행한 폐악적 행동으로 매도될 가능성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남편의 생명을 위해 훼절을 선택한 장본인으로서 여인은 자신의 도덕적 결백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죽음을 택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여인이 죽음을 택하려 하는 데에는 또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단순히 몸이 더 협력했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식의 해석은, 여인의 육체가 이념을 표상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중세의 경직된 이념에 의한 왜곡된 시각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는 여인의 性的 주체성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여인은 자신의 性이 교환 가치로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 오로지 信義와 애정의 차원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여인이 죽음을 택하고자 한 것은 性的인 주체성을 되찾으려는 逆說의인 몸짓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상황이 어찌 되었든, 혼인이라는 계약 관계로서 맺어진 남편에 대한 人倫 때문에 자식을 보살펴야 하는 天倫을 저버리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가 회의적이다. 남편이 죽으면 동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듯이 여인이 갖는 母性愛란 너무도 강렬한 것이기 때문이다.⁵⁾ 이런 여인의 처절한 갈등 상황을 이 話者는 너무도 건조하고 무심하게 전달

5) 새리 엘 서러, 박미경 옮김, 『어머니의 신화』, 까치 글방, 1995 에서 새리 엘 서러는 서구의 역사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여성의 모성애란 남성들에 의해 조작되고 강요된 것 일 뿐, 여성의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母性愛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전에 실제로 여성들이 모성애를 갖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이다. 어머니가 긴 시간을 통해 여러 가지 고통을 인내한 끝에 얻은 자식에 대해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애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판단된다.

하고 있다. 이는 여성 화자 김채란의 각편에서 나타나는 여인의 갈등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상당히 대조적임을 미리 언급해 둔다.

2.2. [어사와 열녀] 이윤덕, 남.

계성영감이란 사람이 妻家에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들르곤 하던 주막에 젊고 예쁜 여인이 있었다. 눈이 와서 길이 막히자 여인의 남편이 출타 중인 가운데 단칸방에서 두 사람이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부엌에서 잠이 든 여인에게 욕심이 난 계성영감은 과거에 급제하면 잘살 수 있다는 말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인을 유혹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후로는 서로 소식을 모르고 지냈는데, 계성영감이 과거에 급제하고 御使가 되어 돌아오다가 여인과 재회하게 되었다. 여인의 남편이 살인죄로 갇혀서 生死의 기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사가 수청을 들면 남편을 살려주겠다고 하자, 여인은 기꺼이 승낙하고 證書를 써달라고 하였다. 여인은 밥을 얄어서 아이들과 남편에게 먹이고는 남편에게 자신이 죽으면 양지쪽에 묻어주고 좋은 사람을 얄어 애들을 잘 키워 달라고 하였다. 여인이 집으로 돌아와서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수청을 들려 하자, 여인이 죽으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 챈 어사는 남편을 살려 주고 여인에게도 열녀비를 세워 주었다. 한편 [청중1: 그 여자는 죽었단 말인가], [청중2: 죽지는 안 했지. 몸을 안 버렸으니. 몸은 안 버렸고.] [청중3: 몸만 버렸으만 죽었지마는]이라고 하는 청중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계성영감은 과거에 급제하면 잘살 수 있다는 말로 이미 남편이 있는 아내를 유혹한다. 妻家에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는 선비가 취할 행동은 아닌 것이다. 그런 부도덕한 계성영감이 과거에 급제하고 御使가 될 수 있는 현실은 심각한 것이다. 백성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인간의 道理를 몸소 실천하여 모범이 되어야 하는 어사조차 실제로는 정욕에 눈이 먼 비윤리적이고 위선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양반 계급에 대한 서민의 신뢰는 무너진다. 백성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마지막 장치인 암행어사조차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는 커녕 남편의 생명과 아내의 性을 교환하는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조리한 상황인 것이다. 여인의 남편이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 정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어사는 여인의 性

이 뇌물(?)로서 제공된다면 正義를 굽혀서 일을 처리할 수 있음을 제의한다. 한편 뇌물을 받고 일을 부정하게 처리할 정도의 인물이라면 그의 약속도 신뢰할 수 없을 것이기에 여인은 종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社會的 非理의 척결자인 어사가 오히려 非理를 조장하고 있는 부조리한 세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여인이 자결을 각오하고 있음을 안 어사가 자신의 욕심을 버리게 된다는 것은, 처음에 그가 여인의 훼절이 갖는 희생적 의미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주막집을 하는 미천한 신분의 여인에게는 정절이라는 윤리적 가치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비롯한 것일 터이다. 그런 까닭에 어사는 여인을 유혹하는 데에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는 여인이 **부부간의 信義란** - 이 이야기에서는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땅히 노력해야 하는 것(烈)과, 남편에게만 독점적으로 性을 허용해야 하는 것(貞節)으로 나타나는 - **신분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부여되는人道의 가치임을** 극명히 보임으로써, 貞節이나 烈이라는 윤리적 가치는 상충 양반 계급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어사의 인식을 깨뜨린다. 이는 어찌 보면 인간 평등에 대한 주장인 셈이다. 조선시대의 유교적 이념으로 무장하고 도덕적임을 내세우는 양반 지배층을 대표하는 어사의 부도덕성과 천한 신분의 여인이 지닌 숭고한 도덕성을 대비함으로써, 유교적 이념을 내세웠던 당대의 양반 계급이 갖고 있는 허위성을 명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인이 죽음을 각오할 때에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어린 자식에 대한 애정이었다. 이 설화 유형에서는 대부분 젖먹이 어린애가 등장하는데, 자결할 것을 결심한 여인이 이 어린 자식에게 마지막 授乳를 하며 느끼는 처절한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는 삶에 대한 여인의 애착을 실감 있게 보여 주어, 남편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바꾸는 여인의 결단이 매우 심각한 고뇌 끝에 내려진 것임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여인은 강한 母性愛까지 포기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인의 貞節은 곧 여인의 생명에 해당한다는 설화 전승자의 의식 세계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여인의 정절과 생명은 오직 그의 남편을 위해서만 의미로운 것이라는 중세적인 烈이념을 드러낸다. 여인의 입장으로서는 상황에 떠밀려 원치 않은 남성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만으로도 큰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행

동이 순수한 동기에 의한 것임을 自決의 방식으로 밝혀야 하는 이중의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데, 이러한 희생은 모성애를 포기하는 것까지 수반하고 있다.

청중의 반응처럼 여인은 몸을 버리지 않았기에 죽지 않을 수 있었다. 혹시 御使와 동침을 한 후 그 代價로 남편이 살았다면 설화 전승자들은 여인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했을지 의문이다. 여성의 육체를 정절이란 가치를 실현하는 이념적 도구로만 보았던 조선시대의 경직된 열 관념으로서는 어사와 동침한 후 여인이 자결하지 않았다면 烈女라고 칭하는 데 주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비설화에는 이보다는 훨씬 열려 있는 烈관념이 나타나기도 한다.⁶⁾

2.3. [그림의 열녀] 김채란, 여.

어느 대감 댁에 밥을 얻으러 온 여인이 美人이었다. 여인이 마음에 든 대감이 여인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술장사를 하도록 해주었다. 대감이 유혹을 하자, 그날 밤에 여인은 대감이 마련해준 것을 모두 그대로 둔 채 몸이 불구인 남편과 함께 떠나 자취를 감추었다. 대감은 자신 때문에 그들이 더 불쌍하게 되었다며 후회하였다. 얼마후 우연히 아주 초라하게 살고 있는 여인과 재회하여 그 남편이 실인 누명을 쓰고 죽게 된 것을 알게 되자, 남편을 살려주도록 하였다. 풀려난 남편이 여인에게 “내가 죽을 사람이 저 대감 때민에 살았는데 네가 요번에 오거들랑 기분 좋게 해서, 그래 기분 좋게 내려 보내라. 내가 비켜 주꺼마.”라고 하였다. 드디어 여인과 한 방에 있게 된 대감은 계속 기회를 엿보지만, 여인은 끊임없이 바느질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이 장면에 대한 화자의 구연은 매우 섬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새벽 먼동이 터울 무렵 여자는 마지막 저고리를 바느질하게 되는데, 이후의 상황을 직접 인용해 본다.

“보니까네, 저 여자 눈에서 피가 철철 쏟아지는 것 같거든. 운다 말이다. ‘이것을 마치고 나면 저 사람하고 자야 안 되겄나?’ 우는 것이 대감 눈에 보이기는 양 눈에서 피가 막 쏟아지는 기라. 그래서 먼동이 탁 틀어진게 대감이 배깥에서 굴복을 했어. 참 과연 열녀다. -중략- 그래서 그 대감이 머석을 하

6) 줄고, 앞의 글에서 논의한 바 있다.

고 가 뿐었어. 왜 그러냐 칼 것 겉으믄, 사람 겉으몬 잔다 이기라. 기림(그림)인께네, 안 자지. 사람 겉으몬 잔다 이기라. 그레 기림에 열녀라 하면서 그 대감이 굴복을 해했어.”

이 각편은 이 설화 유형에 속하는 각편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화자가 구연한 것으로, 내용 전개에서 다른 각편들과 다른 점이 많다. 우선 가장 주목 할 것은 남편의 생명과 여인의 정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생명을 구한 보답의 의미로 事後에 여인의 性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어사의 직권 남용이나 양반의 허위성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대감은 다른 각편에 비해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바, 여인이 도망하자 여인이 고생할 생각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할 만큼 상당히 인정도 있는 사람이다. 게다가 다른 각편에서 나타나듯이 남편의 목숨을 미끼로 여인을 겁탈하고자 하는 비열한 인물로서의 면모도 상당히 회석되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烈과 貞節의 충돌이라는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주체가 대감이 아니라 여인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모든 윤리적 책임은 전적으로 여인의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 이 각편에서 강조되고 있다. 남편은 자신의 목숨에 대한 보상으로 아내의 性을 별다른 갈등없이 제공하려는 어찌 보면 利己的인 인물이다. 그런데도 남편이 아내에게 離別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서술되고 있음은 여성의 貞節은 남편에게 종속된 것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性이 무엇인가를 보상하는 교환 가치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고뇌한다. 性이란 부부간의 신뢰와 애정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여인과 性을 육체적 폐락으로 요구하는 대감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성(남편, 대감)이 요구하고 여성이 제공하는 식의 性을 거부하는 여인의 주체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이 각편에서는 三從之道, 女必從夫, 夫唱婦隨 등등으로 표현되는 전통사회에서 남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 性의 自決權을 갖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고뇌하는 모습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여인은 대감과 동침하지 않기 위해서 새벽이 오도록 저고리를 바느질하며 피눈물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본 대감이 감동하여 陰心을 버리게 된다는 작품 전개

는 다른 남성 화자의 각편에서 모두 여인이 自決하려는 것을 알고서 단념한다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즉, 여인이 죽어야만 烈女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갖는 남성들의 각편과 달리 이 각편에서는 남편의 명령과 性的 自快權을 갖고자 하는 自意識 사이에서 체절하게 갈등하며 고뇌하는 여인을 부각시킴으로써 烈을 여인의 육체가 아닌 意識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모성애와 관련없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도 특이한데, 이는 여성은 주체적으로 인식하기보다 언제나 남성이나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남성화자의 각편과는 다른 점이다.

2.4. [초계 열녀 이야기] 임영환, 남.

서당에 다니는 양반집 도령이 예쁜 여종을 유혹하였다. “너, 나 하루 저녁 만 빌려 줘라.”라고 상전이 사정을 하니 안 들어줄 수 없게 된 여종은 동네 각시가 시묘사는 움막에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움막에서 기다리던 도령은 여종이 오지 않자 시묘사는 여인을 겁탈하였다. 여인이 순순히 응하자 도령은 “시묘 사는 것이 헛 시묘 사는구나.”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여종이 시집을 가게 되어 婦夫가 오게 되자, 도령이 “너 이왕에 시집간가게 생겼응개 나한테 하루 저녁 자구서 시집 가거라.”라고 하며 유혹하였다. 여종이 시집간 후에 응하겠다고 하자 놓아 주었는데, 여인은 시집간 날 저녁에 남편과 도망을 가자취를 감추었다. 후에 도령은 御使가 되어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여종의 집에 득게 되었다. “오늘 저녁에는 니가 내 수청을 안 들을래여?”라며 수청들기를 요구하자, 여종은 몸단장을 하고 오겠다고 나가서는 오래도록 들어오지 않았다. 소리를 들으니 여인이 어린 남매에게 “내가 죽으면 네가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을라 말고, 불이라도 때 주고 밥을 먹고 심부름이라도 해주고 밥을 먹고 남의 밥을 그냥 먹지 말아라.”고 유언을 하고 있었다. 남편 소식을 물으니 도둑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는데, 상전을 배반하고 도망친 노비인 까닭에 어쩔 수 없이 갇힌 지 몇 달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후의 상황을 직접 인용해 본다.

“내가 서방님(御使)을 오늘 안할 수가 없어. 상관을 하면 내일 내가 자결을 혼. 서방님을 상관하고는 자결을 할 참인디 자결을 하면 저것들이 불쌍혀.

그래 오늘 저녁에 머리도 벗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정설을 한다.'고 그러거든. 본개 그런 사람이 없거든. 어사 사람이란 사람이 그걸 정탐하고 다닌 사람이 부쳐잡고 강간을 허겠는가? 어 그러 안 하겠는가? [청중:이차적으로 안 되지.] 안 되야. 그러면 어사가 아니여. 그런개, '걱정 말아. 오늘 저녁에 너를 迷妄心이 있다가 있는 마음이 있었는디, 내가 너를 상관할 내가 아니다. 안심 해라. 내가 내일 네 서방을 내주마.' 그랬던마는 이튿날 가서 읍내 들어가서 죄수들을 다 데려다가 내보내놓고 그 어사가 포계군 길절에다가 열녀문을 세워주었대."

이 각편에 등장하는 御使는 처음부터 상당히 패륜적인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도령의 신분으로 시집을 갈 여종에게 수청을 강요하면서 여인을 성적 도구로 인식하는 "빌려달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시묘사는 여인을 겁탈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순순히 용하는 여인에게 책임을 돌려 여인의 미약한 정절의식을 비웃기도 한다. 이 각편에서는 上典과 奴婢, 御使라는 권력자와 無力한 하층민이라는 신분적 차이에서 일어나는 不條理한 사회상을 잘 보여준다. 또한 노비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상전의 부당한 수청 요구 때문이었다. 이렇듯 부도덕한 자가 正義를 행한다는 暗行御史가 되고, 단지 도망한 노비라는 이유로 선량한 사람이 살인자로 몰리고, 그 억울함을 해소해야 할 어사는 오히려 公務 중에 유부녀를 유혹하고, 유교적인 이념을 백성에게 고양시켜야 할 양반이 신분상의 우위를 내세워 하층 여인의 정절을 폐손하고자 한다. 그런가 하면 (남편의)시묘를 사는 것은 열이라는 유교적 이념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외간 남자의 유혹에 순순히 넘어가는 여인도 참으로 僞善的인 당시의 세태를 드러내고 있다.

여인은 남편의 생명과 바꾸는 거래와 무관하게, 도망한 여종으로서 상전에게 자신의 性을 상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상황을 면할 수 없음을 알고 여인은 실질할 경우 자결할 것을 각오한다. 여인이 어린 자식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 남기는 遺訓은 매우 감동적이다. 남의 집에서 그냥 얹어먹는 짓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낮은 신분으로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양심과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유익을 끼치며 살아야지 해악을 끼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여인의 신념은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양반들의 삶의 태도에 강한 질타를 가하고 있

다. 도덕적인 체하며 실제로는 갖은 악행을 저지르는 위선적인 양반인 어사의 행태와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여종의 삶의 자세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정절을 잃는다면 자결하겠다는 여인의 의지가 결국 어사의 애곡된 의식을 각성시킴으로써, 오히려 아무 代價없이 남편을 살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각편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각편에서는 열과 정절이 아니라 상전에 대한 忠과 여인의 貞節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어서, 이야기는 전적으로 남편의 생명과는 무관하게 신분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3. 분석 내용의 종합적 검토

이 설화 유형에서 제기되어 있는 문제는 복합적이다. 상충 지배 계급과 하층 피지배 계급의 갈등, 부부 윤리 문제, 이념과 본능의 문제, 봉건 사회의 부조리 문제 등, 짚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각편에는 봉건 사회의 재문제가 여러 가지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이런 문제들을 항목별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한편 이후의 논의 내용은 네 편의 각편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총괄한 것으로서, 모든 각편에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⁷⁾

3.1. 烈과 貞節의 이념적 충돌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몸을 허락함으로써 失節하는 것이 오히려 남편에게 有益을 끼치는 것이라면 이는 烈에 해당하는가라는 문제가 이 설화의 첫번째 문제이다.⁸⁾ 다시 말해 여인이 남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간 남자와 원치 않는 관계를 맺는 회생을 하였을 때 여인의 행동이 不烈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한편 魯迅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많은 시사점을

7) 앞에서 검토한 네 편의 각편 가운데 먼저 소개한 두 편은 함께 묶여도 별 문제가 없을 만큼 유사한 내용 전개를 보이는 반면, 뒤에 소개한 두 편은 이들과 차이가 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8)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졸고, 앞의 글에서 달힌 도덕으로서의 貞節과 열린 도덕으로서의 烈이라는 개념으로 논의한 바 있으므로 참고해 주기 바란다.

을 준다.

“오늘날의 道學者의 의견을 따라 정의를 내린다면 節은 남편과 死別한 여자가 再婚을 하지 않고 몰래 달아나지도 않는 것이요,烈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기혼과 미혼을 불문하고 남편으로 정해진 남자가 죽었을 때 곧바로 뒤를 따라 자살하는 것이고 둘째는 강간당하려고 하였을 때 자살하든가, 또는 저항하다가 상대방에 의해 살해되든가이다. 이때 역부족으로 당하고 난 뒤에 자살한 경우는 무조건 그렇게 여길 수는 없다.”⁹⁾

위의 관점에 따르면 烈女란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 貞節을 잃지 않은 여인 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 선다면 이 설화 유형의 주된 갈등 요소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貞節이 회생되어야 한다’는 딜레마적 상황은 자못 심각한 것이다. 한편 ‘改嫁烈女談’유형 설화와 이 ‘옥중에 갇힌 남편을 살려 주면 몸을 허락하겠다는 열녀’유형 설화가 지니는 큰 차이는 전자의 경우 결국 여인의 失節이 실제로 일어난 것임에 반해 후자는 失節이 일어날 소지만 있었을 뿐 결과적으로 여인은 貞節을 지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烈과 貞節의 이념적 충돌이 일어나는 딜레마적 상황’을 해결한 주인공에 대해 ‘그가 과연 烈女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문제는 후자의 경우가 전자에 비해 훨씬 단순하게 보인다.

그런데 이 유형을 구현하는 남성화자들은 여인이 烈의 구현을 위해 失節 할 수밖에 없다면 결국 여인이 열녀가 되기 위해서는 自決의 방식으로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여인이 결국 失節하는 것으로 서사가 전개되었더라면 분명 여인의 자결이 뒤파랐을 것이고, 따라서 여인이 죽음이라는 회생을 통해 남편의 생명을 구한 셈이므로 여인은 실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烈女에 해당한다고 전승자들은 주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편의 생명을 여인의 貞節 그 자체와 맞바꾸는 것을 넘어서 여인의 생명과 맞바꾸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곧 ‘貞節의 훼손’이라는 그릇된 방식으로 구현한 烈은 불완전한 것이기에 여인이 烈女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죽음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失節한 여인은 죽음으로써 열녀가 되는 길

9) 魯迅, <나의 烈節觀>, 《魯迅文集》, 竹內好譯註, 한무희 옮김, 일월서각, 1987.

이 열려 있었을 뿐 전통적인 가치관 안에서는 容忍될 수 없었던 사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달리 여성 화자의 각편에서는 여인의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 있어서 烈이라는 가치규범을 부여하는 주체인 남성들과 입장 차 이를 보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¹⁰⁾

그러나 ‘옥중에 갇힌 남편을 살려주면 몸을 허락하겠다는 열녀’ 유형에서 단지 여인이 결국 失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녀라고 한다면 이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설화 유형에서 여인이 열녀인 것은 피눈물을 쏟거나 더 나아가 자결을 각오할 만큼 커다란 희생을 감수하면서 남편의 유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는 점 때문인 것이다. 이 설화에서 초점이 놓인 것은 여인이 결과적으로 훼절을 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여인이 자신의 貞節을 희생하여 남편의 생명을 구하는 烈을 행함으로써 열과 정절의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두 설화 유형은 烈이란 貞節보다 上位의 규범으로서, 貞節은 烈을 구현하는 한 가지 방식일 뿐 烈의 구현을 위해 때로는 貞節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고 하겠다.

3.2. 交換 價值로 인식되는 性의 문제

이 설화 유형에서 제기된 貞節의 문제는 ‘남편을 살려주면 몸을 허락하겠다는 열녀’에 속하는 다른 하위 유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물론 여인의 失節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여부를 지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른 유형에서는 여인이 자신의 失節에 대해 겪는 고뇌가 이 ‘옥중에 갇힌 남편을 살려주면 몸을 허락하겠다는 열녀’ 유형만큼 절실하고도 심각하게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유형에서 여인의 失節이 남편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 改嫁라는 혼인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옥중에 갇힌 남편을 살려주면 몸을 허락하겠다는 열녀’ 유형에서는 남편의 생명과 교환하기 위

10) 화자의 개성이 그의 각편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특히 남녀 성별에 따른 의식의 차이는 여성의 性을 문제삼는 열녀설화에 대단히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본다. 설화의 주제 자체가 남녀간의 상반된 입장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성 화자와 남성 화자의 의식의 편차에 대해서는 졸고, 앞의 글에서 논의한 바 있다.

한 …回의인 뇌물의 성격으로 강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즉, 여인은 자신의 性이 거래를 위한 교환 가치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강한 自意識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상 性이 교환 가치로 이해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과거 전통 사회에 한정되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인식은 性을 부부 사이의 독점적인 애정 관계 안에서 이해하지 않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性的으로 지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육체적인 쾌락으로 간주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 性이란 누군가(대개 여성)가 제공하는 것을 누군가(대개 남성)가 누리는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아내의 性과 남편의 생명을 교환하는 비윤리적 거래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어사의 제의는 결과적으로 남편의 목숨과 여인의 하룻밤이 同質의 인 가치로 매겨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남편의 목숨과 여인의 하룻밤이 갖는 가치가 비교될 때, …… 見 남편의 목숨에 비해 여인의 하룻밤이 너무도 크게 평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여인의 하룻밤이 바로 남자의 목숨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여인의 정절이 곧 여인의 생명에 해당한다는 것이며 다시 말해서 여인의 육체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해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여성의 性을 육체적인 측면에 한정하여 인식하는 것과, 여성은 性을 제공하는 공급자이며 남성은 이를 누리는 수혜자라는 남성 중심의 왜곡된 시각이 이 설화유형에서 性을 교환 가치로 인식하는 비윤리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3.3. 여성의 性의 自決權 문제

여성의 性은 남편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시 말해 남편이 여인에게 다른 남자와의 동침을 강요할 때 여인이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설화의 화자는 남편이 부당한 요구를 할지라도 여인은 이에 복종함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표한다. 다만 그 내용이 외간 남자와의 동침일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수용하되 매우 주저하고 갈등하는 태도로 임하거나, 아니면 일단 이런 남편의 명령에 복종하고 난 후 자신의 정절이 해손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때로는 죽음도 불사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性은 오로지 남편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며, 여성은 자신의 性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는 화자의 의식을 잘 드러낸다.

그러나 여성 화자 김채란의 각편에서는 남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신의 性的 自決權을 갖지 못한 여인의 고뇌가 매우 섬세하고 곡진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는 남편에 대한 정절의식에 우선하여 원치 않는 남자와의 동침을 강요받는 데에서 오는 고통인 것이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춘향이가 변학도의 수청요구에 거세게 항거한 것도 이도령을 향한 정절의식이나 이도령과의 결합이 갖는 신분 상승 동기에 우선하여 자신을 단순히 性의 폐락의 도구로 간주하는 변학도에 대한 분노에서 일차적으로 출발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이념적 가치나 實利를 추구하기 이전에 인격체로서 인정받고자 한 춘향이 자신의 性에 대한 自決權을 행사함으로써 人間의 自尊을 회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런 여인의 性的 自決權 문제는 이 설화 유형에서 뚜렷이 부각되고 있는바, 봉건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그것도 무력한 하층의 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고통이 잘 형상화 되어 있다.

3.4. 인간의 本性과 理念의 갈등

天倫으로 인한 母性愛(母性本能)보다 婚姻이란 계약관계에 의해 출발한 夫婦愛가 우선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두고 목숨을 끊는 결심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가라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 夫婦愛가 母性愛보다 강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하다. 夫婦愛가 상호간의 유대감에 기초한 비교적 조건부적인 사랑임에 비해 모성애는 보다 본능적이며 自己愛적인 성격을 띠는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상황에서 여인은 당연히 貞節이나 烈이라는 이념적 가치보다 생존의 욕구와 모성애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여인의 결단은 더욱 비장함을 띠는 것이다. 대체로 윤리나 이념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거슬러 정신적인 그 무엇을 지향하는 현실 초월의 성격을 갖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 이념이 지나치게 초월적인

면으로 치닫게 되면 이는 곧잘 오히려 인간을 부정하는 공허한 성질의 것으로 변질되곤 하는 것이다. 烈이나 孝가 경직된 이념으로 변질되어 비인간화를 초래하는 양상이 설화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3.5. 지배 계급의 虛僞와 자기 모순

忠孝烈로 대표되는 조선시대의 이념적 가치를 高揚해야 마땅한 어사가 오히려 여인에게 혼절을 강요한다는 내용 설정은 양반 지배계급의 허위의식을 꼬집는 전승자들의 비판의식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賤人의 딸을 유혹하던 자가 민중의 아픔을 보살피는 正義를 행하는 御使로 발탁되었다는 것 역시 부조리한 사회 현상에 대한 고발을 담고 있는 것이다. 가진 자에게 억압당할 수 밖에 없는 피지배 계층의 억울함을 해소할 마지막 장치인 암행어사도 정체를 알고 보면 부도덕한 인물로서 非理를 척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리를 자행하는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암행어사에게 거는 민중의 소박한 기대는 단지 환상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한편 이야기는 어사가 여인의 행동에 감화되어 남편을 살려주고 여인에게는 열녀문을 내린다는 행복한 결말로 나아간다. 어사가 민중을 敎化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천한 주막집 여인이 어사를 각성시킨 것이다. 이는 결국 스스로를 도덕적인 양하며 유교 이념을 내세워 민중을 교화하겠다는 양반층의 허위 의식과 자기 모순을 파헤친 것으로, 진정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닦으며 살고 있는 것은 낫은 계층의 민중들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여인이 자식들에게 남기는 遺訓에서 보듯이 비록 낫은 신분의 인물일지라도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회적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백성들을 수탈하며 無爲徒食하는 양반층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3.6. 性的 지배관계로 표상된 强者와 弱者の 문제

이 설화에서 묘사되고 있는 어사의 모습은 대단히 부조리하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는 어사가 오히려 백성을 억압하는가 하면, 가장 도덕적 이어야 할 어사가 탐욕에 눈이 먼 인물로 드러나기도 하고, 公正해야 할 어

사가 職權을 남용하여 죄의 有無와 무관하게 살인자를 살려 주기도 하고, 刑事의 억울함을 듣기보다는 향옹(?)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설화의 내용 전개에 있어서 이런 기형적인 어사의 행태가 전혀 낯설지 않고 오히려 너무도 자연스럽게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듣고 있는 청중들 역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듯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의아하다.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이 설화에 형상화된 내용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強者와 弱者 사이에 나타나는 지배와 피지배라는 권력 관계를 表象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설화에 나타난 어사와 주막집 여인의 관계, 그리고 他地에서 도망쳐 왔다는 이유로 살인자로 몰아세우는 공동체와 살인자로 내몰린 여인의 남편과의 관계는 모두 强者が 弱者를 억압하는 세태를 표상한다. 이들이 갖는 이항대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어사(強者) : 양반, 상전, 부유한 자, 권력자(지배자), 남성

여인(弱者) : 천민, 노비, 가난한 자, 피지배자, 여성

마을공동체(強者) : 多數, 정착자, 기득권자

남편(弱者) : 小數, 이주자, 미편입자

이런 身分의 貴賤, 사회적 地位의 高下, 권력의 有無, 貧富, 기득권의 획득 여부 그리고 남녀의 성별에 따른 차별과 같은 강자와 약자 사이의 지배와 피지배 현상에 길들여진 나머지 전승자들은 이것에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다. 대감이 잘살 수 있다는 말로 여인을 유혹하는 것이나, 어사가 여인을 보고 淫心을 품어 여인의 性과 남편의 목숨을 교환하도록 회유하는 상황 설정이 매우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약육강식의 사회상을 性을 매개로 하여 편집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4. 마무리

‘옥중에 갇힌 남편을 살려주면 몸을 허락하겠다는 열녀’ 유형 설화에 나타

난 烈과 貞節이라는 윤리적 가치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은 보다 열린 도덕이며 上位의 도덕인 烈을 위해서 닫힌 도덕이며 下位의 도덕인 정절이 희생될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해결되고 있음을 본다.¹¹⁾ 요컨대 정절은 烈을 구현하는 수단적 가치일 뿐 그것 자체가 烈을 구현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기에 失節이 곧 不烈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설화 유형은 정절이나 열이라는 가치 규범이 현실에서 실제로 적용될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 전승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런 남녀의 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남성 화자와 여성 화자는 입장 차이를 보인다. 남성 화자는 여인이 失節하고 나면 반드시 자결을 할 것임을 전제한다든지 여인의 고통을 母性愛와 관련지어 표현하는 데에 비해, 여성 화자는 여성의 자의식과 관련지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이는 여성은 언제나 남성이나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남성화자와 여성은 독립적인 자아로 바라보는 여성화자의 의식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유형에 속하는 각편의 수가 워낙 적은 데다, 여성 화자의 각편이 한 편뿐이어서 이 설화 각편에서 발견되는 화자들의 의식 차이를 성별간의 문제로 곧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다고 본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개인차로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자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재론할 문제라고 본다. 정리하건대, 이 설화 유형은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신분 갈등을 비롯하여 男女의 性, 사회적 모순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복합적이고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가치있는 자료라고 하겠다.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미진한 점은 후속 연구의 봇으로 남겨두기로 한다.

11) 열린 도덕과 닫힌 도덕이라는 개념은 양리 베르그송의 견해를 원용한 것이다. H. 베르그송, 송영진 옮김,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서광사, 1998.